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킵 모기지

주/택/융/자/전/문

다양한 융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advisorutrust@gmail.com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즐거움 약국, 편안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간짜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Complete Auto Repair & Body Work
Lic. #2208A
NJ State Inspection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이진 품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중앙장례사

MEMORIAL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 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순
제 5주일
2020년
3월 2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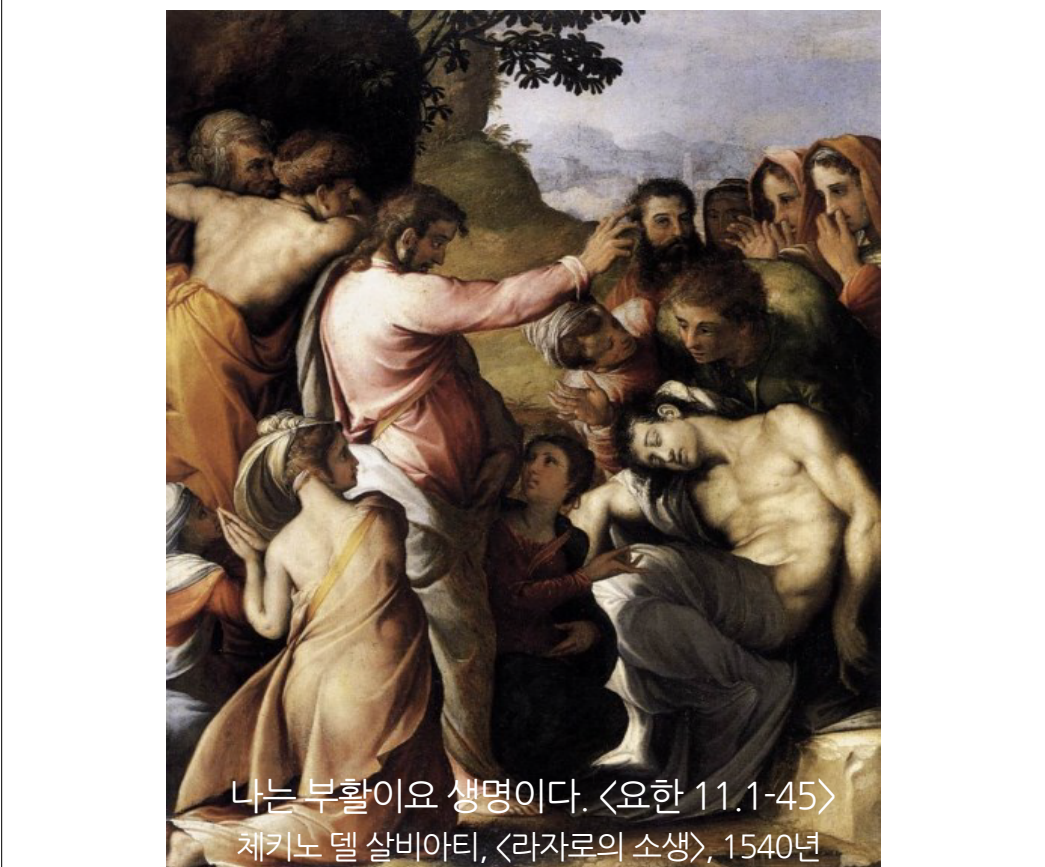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12ㄹ-14

화답송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7ㄴㄷ)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8-11

복음환호송 요한 11,25,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복음 요한 11,1-4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후렴: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전례 성가	입당성가	봉헌성가	성체성가	파견성가
	121번	216번, 215번	497번, 172번	116번
성체 분배	# 당분간 성체분배는 없습니다.			
안내 봉사	# 3월: 사랑하올 어머니 Pr # 4월: 순교자들의 모후 Pr.		친교 봉사	# 당분간 친교봉사는 없습니다.
신자들의 기도	# 3/29: 오현주 요한		봉헌 봉사	# 3/29: 박재영 요아킴 박인자 안나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김정순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김진자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철(요한) - 김 율리아, 스테파노 가족
- 대자, 대녀들 - 최 율리아나
- 문형곤(예비자) - 한 빈첸시오 외 3명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구분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KCC	-	-	-
OLM	-	-	-
합계	-	-	-

미사 참석: - 명

교무금 안내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분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9,085이며 목표액의 26% 달성하였습니다.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신청마감 3월까지)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십자가의 길, 3/29 새신자 1일 피정, 4/1 사순 판공, 4/4-4/5 Rosary Altar Society Bake Sale, 4/23-4/26 미 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관련 교구 지침

공동 미사의 잠정적 중단
- 메타천 교구의 모든 공동체의 미사는 3월 18일 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4월 3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사가 중단 되더라도 신부님들의 사적인 미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주교자 대성당에 아침 7시에 거행됩니다. 또한 이 미사는 성당 웹사이트(www.stfranciscathedral.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성체 성사는 신앙인의 삶의 원천이며 절정입니다. 메타천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맞겨진 모든 신앙의 삶과 이 힘든 시기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선한 지향들을 사적인 미사 안에서 기억하며 거행해야 합니다. 사제들은 다른 신부님이나 부제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혼자서라도 미사를 거행 해야 합니다. 신부님들은 신자 여러분들이 봉헌한 미사 지향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고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간에 봉헌되는 미사는 여전히 우리의 미사 지향을 충만히 기억하면서 봉헌될 것이지만, 신자들은 이 시기에 그 미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갈릴레아 호수의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에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나다. 두려워 하지 마라.”(요한 6,20)
- 주님은 믿음이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 주십니다. 이 힘든 상황 안에서 우리는 신앙인 답게 더 기도에 전념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해성사의 잠정적 중단
- 고해 성사는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거행하지만, 공공의 고해 성사 거행은 없어야 합니다. 사제는 고해 성사를 거행 할 시, 바이러스 전염 방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자 성사
- 병자 성사는 죽을 위험에 있는 이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제가 병원이나, 양로원 또는 다른 헬쓰케어 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사제는 그 기관의 위생관리 기준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며, 마스크와, 옷, 그리고 장갑과 또는 안경등을 착용하고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 집에서 병자 성사를 거행 할 경우 사제들은 합당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합당한 감염 방지를 위한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45

그때에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를 죽였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복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복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 묵상 나눔 (사순 제5주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요한 11,4)

라자로의 죽음과 부활로 주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나의 삶 안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 11,25-26)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 11,25-26)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대입해 보면 우리 인간의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성인도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약함, 배고픔, 아픔, 부족함,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성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안에서 찾아봅시다.